

#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 설 물가 관리를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 신속 지원
- 성수품 및 외식 등 주요 33개 품목에 대한 일일물가조사 실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설 명절 일일물가 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3개\* 주요 품목의 일일 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 (농축수산물 21개) 과일, 채소, 쇠고기, 달걀, 조기 등, (가공식품 5개) 밀가루, 두부, 식용유 등, (석유류 3개) 휘발유, 경유, 등유, (외식 4개) 삼겹살, 치킨 등

이형일 통계청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월 9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청은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운 날씨와 어려운 조사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경제동향심의관 물가동향과	책임자	과 장	백지선 (042-481-2530)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042-481-2541)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이형일 통계청장(오른쪽)



설 명절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이형일 통계청장(왼쪽)